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보물 된다

진안 금당사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조선 초기 고문서·국가문서 양식 연구 위한 자료 평가

진안군 마이산에 있는 금당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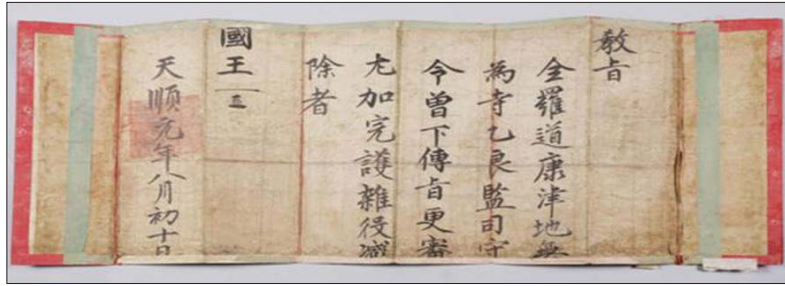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지난달 29일 세조의 공식적인 교지문서인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를 포함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서·서적·불상·불화 등 7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이다.

세조 연간 불교시책의 일환으로,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해 예조(禮曹)에 하교하였고, 같은 해 7~8월 동안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했다.

당시 발급된 감역교지로 원문서가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 교지를 포함해 '예전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진안 광덕사 감역교지'가 있으며 이 3건은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절첩본 형태로 개장



진안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하였으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조의 어업(御押: 임금의 수결을 새긴 도장)과 '시명지보(施命之寶: 조선시대에 책봉이나 벼슬을 내릴 때 사용한 도장)'의 어보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조선 초기 고문서로, 국가문서 양식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조선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보여

주며, 더 나아가 조선시대 경제사 및 불교사 등 관련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당사 감역교지' 등 문화재 7건의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군 읍·면 농악경연대회 성료

쌍치면 흥사랑풍물패, 영예의 대상 수상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한 순창군 읍면 농악경연대회가 지난달 31일 순창국악원 광장에서 8개 읍면 농악단이 참가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따라 무관중으로 실시됐으나 대회에 참여한 단원들의 열기와 에너지로 대회는 허전함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화기애애했다.

순창국악원이 주최하고 순창군, 순창군의회, 순창시조협회, 국악동호회가 후원하는 농악경연대회는 매년 순창장류축제기간에 개최되며 11개 읍면 농악단이 참가하는 장류축제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다.

각 읍면 주민이 바쁜 생업 중에도 틈틈이 모여 연습하고 읍면마다 특색이 담긴 농악단은 주민화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지난해 코로나19로부터 주민안전을 위해 행사를 취소했으나 올해는 지역 내 백신접

종률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무관중으로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의 영예의 대상은 쌍치면 흥사랑풍물패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북흥면 한들농악단, 우수상은 순창읍농악단에서 차지했다.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참가 농악단도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리를 빛냈다.

조계문 한국국악협회 순창군지부장은 "10월의 마지막 날 가을 햇살을 받으며 농악경연대회를 무사히 마쳐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순창국악원은 순창 국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각 읍면별 영상으로 나눠 순창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순창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의 우승팀은 내년도 전라북도 시군농악 경연대회 순창군 대표 참가자격을 얻는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군, 군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다채롭게 열린다

북 토크·사진·서예 전시회 등 진행

무주군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면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해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무주군은 (재)무주산골문화재단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마실 무주 북 토크를 마련해 유명 작가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무주 북 토크는 흥승은 작가를 비롯해 강원국, 박남준 작가 등이 강사로 참여, 글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글 쓰는 법을 비롯한 말 잘하는 법, 가제목 다는 법 등의 글쓰기 수업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작가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소개와 삶의 이야기를 통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면서 가을날 군민들의 정서함양에도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무주 안국사에서는 무주사진가협회(회장 이운승) 주관으로 무주 주요 관광명소를 담은 사진 3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재현 사진을 비롯해 적상산 단풍 비경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관람



무주군은 (재)무주산골문화재단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마실 무주 북 토크를 마련해 유명 작가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료는 무료다.

가을철을 맞아 심오한 무주의 비경을 담은 사진작품들로 안국사 방문객들과 관광객들로 부터 작품에 대한 큰 찬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안성면에 위치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무주 지역 출신의 20여명의 작가들이 출품한 주옥같은 서예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202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서예, 전북의 산

하를 말한다' 행사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친구·가족단위로 참여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욱 팀장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계가 위축이 되면서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다"며 "이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과 가을날 멋진 추억으로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광한루원 일원서 5~7일 '남원문화재 야행' 개최

남원시는 오는 5일부터 사흘간 광한루원 일원에서 '2021 남원문화재 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당초 지난달 초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차례 연기한 바 있으며,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예약(10월 23일부터 11월 2일)을 통해 진행한다. 방침으로, 유튜브 '남원문화재야행'과 공식홈페이지(www.namwonculturefestival.kr)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남원 문화재야행은 지난해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 첫선을 보였으며, 코로나-19로 전면 비대면으로 개최했음에도 관람부의 이경,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 구성면에서 우수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야행에서는 밤에 즐길 수 있는 여덟 가지의 주제(8夜)로 ▲야경(夜景)은 경관조명이 펼쳐진 광한루의 밤풍경을 감상하고 ▲야로(夜路)는 밤에 걷는 문화의 거리로 옥황상제 길놀이 퍼레이드 등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거리 곳곳에 펼쳐진다.

▲야사(夜史)는 밤에 듣는 문화재 역사이야기로 황희 정승의 광한루 장진스토리와 공연이 진행되고 ▲야화(夜畵)를 통해 광한루원의 밤풍경과 함께한 옛 사진을 감상할 수 있고 ▲야설(夜說)은 문화재 감성공연으로 한복 입고 야행, 문화예술청년들의 흥겨운 공연이 광한루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야식(夜食)은 옥황상제의 남원맛보기를 통해 남원 특산품 및 농산물을 소개하고 ▲야숙(夜宿)은 한옥에서의 하



룻밤 묵고 ▲야시(夜市)는 조선의복을 입고 플라마켓과 야간 카페를 운영한다.

단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방역지침에 따라 동시 관람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사전예약은 입장권, 체험 키트 및 의상 대여 포함 10,000원으로 네이버페이로 통해 손쉽게 예약이 가능하고, 사전예약자가 아니더라도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탁 운영자 모집

전북도는 민간위탁해 운영 중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역량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함으로써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반영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응모신청서는 오는 15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전북도 문화예술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응모자격은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법인·단체로서 법인·단체의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전에 설립한 법인·단체이어야 하며, 11월 4일에 있을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법인·단체로 한다.

단, 법인·단체의 지역제한은 없다. 또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수탁 운영시 도민 문화향유 기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운영 기간 내에 3억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물 부담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단체이어야 한다.

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탁운영자 선정을 위해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법인·사업계획서 및 제안 발표를 종합 검토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거쳐 11월 말까지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서식 등 구체적인 공고 내용은 전북도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예술과(280-2493)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페이스북 '올해의 페이스북' 선정

전북도 페이스북이 '올해의 페이스북'에 선정됐다.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가 주최한 '2021 올해의 SNS 어워드'에서 페이스북 부문 광역 지자체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전북도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올해의 페이스북'에 선정되며, 그 의미를 더했다.

도 페이스북 팬수는 18만7,455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부산에 이어 3위에 랭크돼 있으며,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10년간 총 8차례 수상하는 등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의 SNS 어워드'는 SNS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공공기관·소상공인 및 소기업·

개인의 SNS 활용현황을 평가, 플랫폼별로 시상해 대한민국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들고자 제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회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정량평가와 전문가 및 사용자 평가를 종합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도는 페이스북 팬수와 사용자 반응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콘텐츠 기획 및 구성 능력, 팬과의 소통을 등을 평가는 정성평가에서 고른 호평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을 펼치는 등 도민 친화적 콘텐츠와 재미와 정보를 균형있게 전달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유호상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검색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